

선전(深圳)을 보면 중국의 미래가 보인다

- 하이테크, 친환경, 금융의 중심 -

곽배성 수석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 (bskwack@posri.re.kr)

목차

1. 선전의 탄생과 성장
2. 하이테크·친환경 혁명의 중심
3. 금융 선진화의 중심
4.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시험무대로 성장해 온 선전(深圳)이 중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하이테크·친환경·금융업을 선도하는 역할로 진화 중
 - 1980년 경제특구 지정 당시, 인구 3만의 어촌에 불과했지만, 주강 삼각지대의 지리적 이점에 기반하여 가공무역·물류산업의 중심지로 성장
 - 현재 선전의 산업구조는 하이테크·친환경·금융 등 신성장 산업 위주로 전환되면서, 선전의 성공 여부가 곧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가 되고 있음
-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생산 인프라와 선진 스타트업 프로세스가 결합되어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며 IT 혁명을 견인
 - 선전은 Huawei, DJI, Tencent 등 전자통신, 컴퓨터, 인터넷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을 배출하고 있으며 R&D 투자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임
 - 최근 중소·혁신 기업 중심의 발전을 꾀하는 중국 정부 정책과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창업 인프라에 힘입어 경쟁력 있는 혁신기업들이 탄생
-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대중교통 상용화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의 선봉장 역할 수행
 - 국가 및 시 정부의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통하여 '10년 세계 최초로 전기 택시 상용화를 시작하였고, 현재 선전시 전체 택시의 1/3을 전기차로 교체
- 선전의 금융산업은 '14년 선전시 지역총생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혁신·중소기업 자금 조달 및 위안화 세계화에 기여
 - 선전증권거래소의 중소판·창업판 시장은 중소·혁신 기업의 자금 조달 및 벤처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처로서의 역할을 하며, 창업 및 금융 산업의 선순환 유도
 - 선강통, 첸하이 자유무역지대의 위안화 유통 자유화 등을 통하여 중국 자본시장 개방 및 위안화 세계화를 위한 시험무대가 되고 있음
- 선전의 성장동력은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창의적 인재들이 형성한 신생 도시 특유의 자생적 혁신 문화에 기인
 - 기술개발 및 금융에 대한 정책적 지원 뿐만 아니라, 창업자 지원 등 인적자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하여 다양한 우수인재가 결집될 수 있도록 유도
 - 거의 無에서 시작한 도시이기에 기존의 기득권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하게 의사결정하고 실행하는 문화 또한 특유의 경쟁력 원천임

1. 선전의 탄생과 성장

□ 선전(深圳)은 중국의 개혁·개방 선언 후, 최초로 지정된 경제특구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시험무대로서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성장

- 1980년 경제특구 지정 당시, 인구 3만의 어촌에 불과하였으나, 주강 삼각지대의 지리적 입지를 이용하여 초기 가공무역 및 물류 중심으로 성장
 - 인접한 홍콩·마카오의 자본과 광둥성의 값싼 노동력에 기반하여 가공무역을 위한 제조업과 판매를 위한 물류산업 중심으로 발전
 - '86~'12년간 홍콩·마카오의 투자 비중은 선전시 전체 FDI의 75%를 차지하며, '13년 홍콩으로의 수출액이 전체 선전 수출의 59.2% 점유

〈그림 1〉 주강 삼각지역



- 현재 인구 1,200만, 중국 내 4위의 경제력을 보유한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선전시 단일 경제만으로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정도로 성장
 - '81년 이후, 연평균 17.3%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며 '15년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에 이어 중국 내 4위의 경제 규모를 보유하고 있음
 - '15년 선전시의 지역총생산은 U\$2.7억으로 칠레(U\$2.4억)나 베트남(U\$1.86억)의 GDP를 넘어서는 수준
 - 경제, 생활, 사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중국 도시 경쟁력 평가에서 최초로 홍콩을 제치고 1위 차지 (중국사회과학원, 2015)
- 현재 선전의 산업 구조는 이미 중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정의된 하이테크·친환경·금융 산업으로 전환되어 중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상황

- 리커창 총리는 첨단산업화, 중소·혁신기업 활성화 등을 중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정하는 동시에 위안화 세계화, 자본시장 개방 등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도 강조
- '15년 선전 지역총생산의 70%를 하이테크 산업 및 금융업이 차지하고 있어 선전의 경제·산업 구조는 이미 중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대변
- 하이테크·금융업이 집중되어 있는 선전 난산(南山) 지역의 1인당 소득은 홍콩의 1인당 소득보다 높은 U\$4.8만 수준까지 성장

2. 하이테크·친환경 혁명의 중심

□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생산 인프라와 선진 스타트업 프로세스가 결합되어 '중국의 실리콘밸리', '하드웨어의 실리콘밸리'로 부상

- 전자통신, 컴퓨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들의 본사와 R&D센터가 위치하면서 중국의 실리콘밸리를 형성
 - Huawei, Tencent, BYD 등 이미 기술·규모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선전 출신의 기업들이 R&D 클러스터를 형성
 - '14년 선전의 R&D 부문 투자규모는 지역총생산의 4%인 U\$96억으로, 한국 또는 이스라엘의 국가 R&D 투자규모와 비슷한 수준
 - '13년 선전의 전자·통신 관련 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U\$470억으로, 선전 전체 부가가치 생산의 55.5%를 차지함

〈표 1〉 선전에 본사를 둔 하이테크 기업

회사명	설립	업종	매출('15)	비고
Huawei	1988	네트워크·통신장비 제조	U\$608억	매출 세계 1위
ZTE	1985	통신장비 제조	U\$150억	모바일폰 제조 세계 4위 (OEM포함)
DJI	2006	드론 제작	U\$10억	세계 1위 드론 제조업체
BYD	1995	전기차, 배터리 제조	U\$119억	전기차 판매량 세계 1위
Tencent	1998	인터넷 서비스	U\$154억	중국 최대 SNS 서비스 등 운영

- 리커창 총리가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강조한 '첨단 기술로 무장한 혁신·중소기업'들이 선전의 경제 주역으로 등장
 - 중국 정부와 선전시 정부의 산업 업그레이드 정책 아래, 지난 5년간 50만 개 이상의 혁신·중소기업들이 탄생

- 선전시의 창업률은 인구 8.5명당 창업 주체 1명으로 중국 대도시 중 1위이며, 인구 1,000명당 기업수도 73.9개로 역시 중국 내 1위
- '16년 CES 참가기업의 10% 이상이 선전에 본사를 둔 기업이며 대부분 IoT, 웨어러블, 드론 등과 같은 하이테크 산업 관련 신진 기업
-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스타트업 지원 인프라 및 프로세스가 집결되어 전세계 최고·최적의 하드웨어 창업 클러스터를 형성**
 - 중국 벤처캐피탈의 1/3과 세계적 수준의 엑셀러레이터들이 선전에 근거를 두고, IT기술과 결합된 하드웨어 창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참고]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 창업 아이디어 단계의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업무공간, 홍보, 투자자 네트워킹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 벤처 단계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수행
-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선전으로 본사를 옮긴 HAX, 중국 2위 전자상거래 기업 JD.com이 운영하는 JD플러스인큐베이터 등이 선전에서 활발히 활동 중

- 선전에 위치한 중국 최대 IT유통시장 '화창베이'와 소규모·다품종 생산이 가능한 1,000여 개의 시제품 제조업체가 새로운 제품의 시험·유통을 촉진
 - 선전의 시제품 시험·유통 비용은 한국의 1/2배, 소요기간은 1/5~1/10 수준
- **선전시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과 로컬 기업들의 지속적인 창업투자가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견인**
 - 선전시는 매년 선전에 등록된 3,000여 개의 과학기술 창조기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 기업에는 RMB30만~300만의 창업자금을 지원
 - 창업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대학생 창업자금(최대 RMB10만) 지원, 과학기술 창조기업 예산 지원 등 다각적 창업 지원 정책 시행
 - 선전에 본사를 둔 Tencent의 경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RMB100억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Tencent의 alumni들 또한 엔젤투자자로 활발히 활동

□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동차의 대중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 '전기자동차의 메카'로 부상

- 선전시 정부는 '10년 세계 최초로 전기자동차 택시 상용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각종 인센티브와 인프라를 제공

- 전기차로 교체하는 택시회사에는 교체 차량당 약 RMB19만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 면허기간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 '15년 말, 선전 택시의 1/3인 약 5,000대의 택시가 전기자동차로 교체
- 전기자동차 운행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 전역에 3,000개의 저속 충전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1,800개의 고속 충전시설을 건설 중
- 선전의 대중교통 전기자동차화 프로젝트와 선전에 본사가 위치한 BYD는 상호 Win-Win 관계를 형성하며 발전
 - BYD는 선전시에 거의 독점적으로 전기자동차 택시를 공급하고 있으며, '16년 7월 약 RMB15억의 전기자동차 버스 공급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됨
 - 택시 상용화 기준인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260km 이상을 만족하는 중국 전기차 차종은 현재 BYD의 모델인 'e6' 밖에 없음
 - 이러한 독점적 공급에 힘입어 전세계 35개국에 전기 버스와 택시를 공급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획득,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공급량 1위를 기록
 - BYD가 생산하는 전기 버스 K9은 미국, 영국, 일본 등 35개 국가 150개 도시에 6,000대가 공급되어 운행하고 있음

3. 금융 선진화의 중심

- '14년 선전 지역총생산의 14%를 차지하는 금융산업은 혁신기업, 중소기업 등 중국의 미래 성장엔진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
- 선전증권거래소의 중소판, 창업판 시장은 중국의 혁신·중소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표적 창구
 - 대형기업, 국영기업 위주로 구성된 상하이거래소와 달리, 선전거래소는 전자,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점유
 - 선전거래소는 주판(Main board)과 더불어 혁신·중소기업들 대상 시장인 중소판(SME Board), 창업판(ChiNext)을 별도로 개설
 - 상하이·선전의 주판보다 상장요건이 낮은 중소·창업판은 은행의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

〈표 2〉 상하이 vs. 선전 증권거래소 비교

구분	상하이	선전			
		주판 (Main Board)	중소판 (SME Board)	창업판 (ChiNext)	합계
개장 년도	1990	1991	2004	2009	-
상장기업 수	1,109	478	793	516	1,787
시가 총액 (RMB 10억)	25,960	6,861	9,653	5,232	21,746
일일거래대금 (RMB 10억)	178	87	142	89	318
대표기업 (시가총액 Top5)	공상은행 중국석유 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석화	Vanke(부동산) Midea(가전) 평안은행 우량예(전통酒) SWHY(금융)	HIKVISION(CCTV) Focus Media(광고) 국신증권 BYD(전기차) Yanghe(전통酒)	WENS(식품) LETV(미디어) 동방재부망(금융정보) LENS Tech.(광학) Wangsu(S/W)	-

출처: 상하이증권거래소, 선전증권거래소, '16.7.25. 기준

○ **중소판·창업판은 벤처캐피탈과의 투자금 회수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벤처캐피탈의 활성화와 선전거래소 자체의 성장에도 기여**

- 대표적 국유 벤처투자사인 선전캐피탈의 경우, '99~'15년 동안 600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하여 100개 이상의 기업을 상장시키는 기록적인 성과를 달성
- '16년 7월 현재, 창업판의 시가총액은 RMB5.2조로 전세계 혁신산업거래소 중에서 나스닥 다음 규모로 성장

□ **선강통(深港通), 첸하이 자유무역지대의 위안화 유통 자유화 등을 통하여 자본 시장 개방 및 위안화 세계화를 선도**

○ **선전-홍콩 증시간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선강통이 실시될 경우, 중국 혁신·중소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

- 선강통은 선전증시에 상장된 신성장 산업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투자 규모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선전증시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신성장동력으로의 중소/혁신기업 강조 및 선강통 등의 이슈로 인하여 최근 선전 중소판의 거래대금·거래량이 상하이를 추월하기도 하였음
- 시티은행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16년 하반기에 선강통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 홍콩-선전간 시스템 테스트 중

〈그림 2〉 상하이와 선전 거래소 거래량 비교



출처: Bloomberg

[참고] 선강통(深港通)

- 중국 본토와 해외투자자들이 별도의 라이선스(QFII, QDII 등)없이 선전과 홍콩 증권거래소 간 교차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
- 해외의 투자자들은 홍콩 증권계좌를 통하여 선전증시에 투자할 수 있고, 중국 본토 투자자들은 선전 증권계좌를 통하여 홍콩증시에 투자 가능
- 이미 중국 정부는 상하이-홍콩 거래소간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후강통을 '14년 11월부터 시행 중

○ 선전의 첸하이 자유무역지구는 홍콩의 역외 위안화 결제기능 강화 및 본토 투자자의 역외 금융시장으로의 접근을 지원하며 위안화 세계화에 기여

- 첸하이와 홍콩 간의 위안화 유통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홍콩의 역외 위안화 결제량이 증가되고 홍콩 은행의 첸하이 지역 기업에 대한 위안화 대출도 확대
- 역내 내국인의 위안화 해외 대출 및 해외투자 등을 허가(QDII2)하면서, 글로벌 통화로서의 위안화의 기능을 확대
- 역내 투자법인과 근무인력에게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15년까지 U\$17억의 투자 및 1,400여 개 외자기업을 유치하는 성과 달성

4. 시사점

□ 미래 산업 육성 정책과 더불어 산업을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인력유치 정책도 선전 발전의 중요한 원인

- 선전시 정부는 전기자동차, 드론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행사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 적극적 정책 지원 및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창업자 지원 프로세스, 전문가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적 자원을 집중시켜 시너지형 클러스터 형성
 - '07년 중국 전체 박사 학위자 중 20% 이상이 선전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14년 현재 130만 명의 전문인력이 선전에 정착
 - 우수인력의 입국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글로벌 인재영입 프로그램 (Peacock Plan)을 가동하여 최고 수준 해외인력 1,000명 영입에 성공

□ 신생 도시 특유의 개방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문화가 독특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

- 개방성: 중국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가장 먼저 적용되었고, 도시의 탄생 및 존재 이유 자체가 자본주의 경제의 실험실과 같은 역할
 - 초기 제조업 기지에서 현재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성장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글로벌 선진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역량을 흡수
 - 거의 無에서 시작한 도시이기에 기존의 기득권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하게 실행하는 문화를 형성
- 다양성: 다양한 인적 구성 요소 간의 자유롭고 수평적인 네트워킹 문화가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의적 문화를 형성
 - 선전은 광둥성의 도시 중 유일하게 광둥어가 통하지 않는 도시로 알려질 정도로 중국 전역의 인력들이 집합
 - 최근 하드웨어 창업 붐과 함께 한국, 대만, 홍콩과 미국, 유럽 국가의 인력들까지 가세하면서,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선전의 발전은 향후 중국 발전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며, 한국 기업들도 향후 중국 사업 전략 개편을 위하여 선전의 변화 주시 필요

- 선전의 발전은 양적 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중국 정부 경제·산업 정책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
 - 선전은 혁신·중소기업 중심의 성장, 자본시장 개방, 전기자동차 대중화 등을 선도하며 여전히 중국 개혁·개방의 Pilot 역할을 수행
 - 선전의 발전모델이 성공할 경우,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도 선전식 발전모델이 확산되며 중국 산업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
- IT, 하드웨어, 금융이 결합된 선전의 산업 모델은 전통적 중국 사업 전략 재편을 추구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혁신 아이디어 및 기회 제공 가능
 - 전통적 제조업과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사업 모델 도출을 위한 중국 시장 최신 트렌드 파악 및 사업 파트너 발굴 필요
 - 선전 등지에서 실험되는 위안화 세계화 과정을 주시하여 향후 투자 및 결제 통화로서의 위안화 활용성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방안 준비 필요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보고서/논문]

김보경, 김정주, “중국 심천의 재발견, 날개다는 하드웨어 스타트업”, 한국무역협회, 2016.6
전종규 外, “중국 성장산업 訪問 보고서”, 삼성증권, 2015.9
박민규, 왕봉, 강명구, “중국 선전 경제특구 성공에 있어 ‘연결도시’로서 홍콩의 역할”, 국토계획 50(1), 2015.1

[홈페이지]

선전시정부 (<http://www.sz.gov.cn/>)
첸하이경제특구 (<http://www.szqh.com.cn/>)
선전증권거래소 (<http://www.szse.cn/>)
상하이증권거래소 (<http://www.sse.com/cn/>)
선전캐피탈그룹 (<http://www.szvc.com.cn/>)
중국통계청 (<http://stats.gov.cn/>)
중국사회과학원 (<http://cass.cssn.cn/>)
KOTRA 선전무역관 (<http://www.kotra.or.kr/KBC/shenzhen>)
CES (<http://www.ces.tech/>)
China Knowledge (<http://www.chinaknowledge.com>)

[언론]

오광진, “창업생태계의 자금 선순환”, Economy Chosun, 2016년 7월 3일자
Huifeng He, “Shenzhen offers new incentives to boost switch to eclectic taxis”, South China Morning Post, 2015년 4월 24일자